

Exploration on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Dropout

Park, Geum-Ju¹⁾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asons of college students' dropout.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were based on grounded theory, presented paradigm model, analyzed the process and derived core categories. Through open-coding, we derived 39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In the paradigm model, firstly, by axis coding, the central phenomena of the causal conditions, which have some results: For example, awareness of college rank, nega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orries and conflicts about the dropout. Secondly, contextual conditions corresponding to central phenomena which were lack of discipline in university life, discrepancy of expectation in university life, and a university makes me feel small. Thirdly, the arbitration conditions were that consideration for their filed of majors and beginning new experience at the university. Forth, the action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trying to collect opinions for dropout and isolating from everyday life. Meanwhile, they choose two options both dropout and choice for the future. The core categories in select coding that is choosing a career for a better future, in specific, they considered that a career path by choosing their major in school form preparatory stage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o the after graduate.

Key Words: university life, university admissions system,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dropout, grounded theory

1) Corresponding Author: PARK Geum-Ju,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31116 / E-mail: 12171176@dankook.ac.kr

대학생의 중도탈락 과정 탐색

박금주¹⁾ (단국대학교)

< 요약 >

이 연구는 대학중도탈락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중도탈락과정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분석과 해석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페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 과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을 통해 총 39개의 개념과 14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페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 존재',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이며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중심현상이었다. 중심현상에 대응하는 맥락적 조건은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활', '대학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으로 나타났다. '지원학과에 대한 생각과 준비', '새로운 경험의 시작, 대학생활'은 중재적 조건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고 결과에서는 '중도탈락',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였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하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대학 입시준비과정부터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하여 지원학과를 선택하였다. 대학입학 후 대학생활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진로선택에 대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다.

주요어: 대학생활, 대학입학전형, 대학생활적응, 중도탈락, 근거이론

1) 교신저자: 박금주,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 E-mail: 12171176@dankook.ac.kr
논문투고: 2019. 5. 28 / 심사일자: 2019. 6. 9 / 게재확정일자: 2019. 6. 14

I. 서론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학업성적 위주의 제도였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재 양성,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김신일, 2009).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보다는 대학입시에 중점을 둔 입시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04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입전형의 전문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4년부터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명칭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교육부, 2014; 교육부, 2017).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성적 외에 전형자료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활용하고 추가로 면접을 실시해 전공에 적합한 인재, 학업에 열의가 있는 인재를 선발하였다. 이러한 학생선발은 전공에 적합한 학생선발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서울신문, 2011)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각 대학은 예비대학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추수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보나(2011)와 김경영(2011), 노경란, 윤수정(2012), 임진택 외(2014)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황형태(2011)는 입학사정관전형 대학생들의 입학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윤희식, 강창완(2015)은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이 타전형 입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도, 학교만족도, 잠재역량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였다. 강기수, 조규판(2017)은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분석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의 학생이 수능위주전형의 학생보다 중도탈락률이 낮고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학생부전형 학생이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대학중도탈락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혜란, 최미나(2008)는 전공과 진로의 관련성이 적고 부모의 결정으로 진학하여 학과문화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들었다. 최명선, 강

지희(2008)는 대학중도탈락자들이 진로결정력이 부족하고 이런 결정을 주위의 중요인적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강승호(2010)는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유능감, 정신건강을, 김경희(2011)는 개인흥미요인과 자긍심을 중도탈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연보라, 장희원(2015)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진학교육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중도탈락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전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 연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중도탈락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경험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범주화하고 상호 관련지어 이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Strauss & Corbin, 1998).

대학중도탈락 대학생이 어떤 대학 입학 과정을 통해 입학 후 어떤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어떤 추수관리가 이루어지며 어떤 과정을 통해 중도탈락하게 되었는지, 중도탈락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지원학과에 대한 진로계획과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도탈락에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중도탈락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과정, 입학 후 대학생활, 추수관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중도탈락

적응은 변화하는 사회환경, 개인이 처한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Morris(1985)는 적응의 상태는 완전한 적응과 부적응이 있다. 적응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개인적 요구의 실현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적응은 환경과 개체 간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대외활동이나 대인관계(선·후배/교수와의 관계, 대학직원과의 관계)에 적응하고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고 동료 학생에 대해 갖는 애착이나 유대감 측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있어 학업적 측면 외에도 비학업적 측면이 학생의 적응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 학업 외적으로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생이 학업성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Astin, 1985).

반면에,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은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며, 이것이 중도탈락의 원인이 된다. 중도탈락 의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퇴 생각을 갖고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양경화, 2005).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휴·복학 반복은 대학에 다니고는 있으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 즉, ‘중도탈락의도’가 보이는 양상이다(박우정, 2018). 대학중도탈락은 학업적 측면, 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등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의나 타의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을 떠남을 의미한다. 대학중도탈락의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학교 부적응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떠나거나 학업중단을 대학중도탈락으로 보았다.

대학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조직론적 접근, 상호작용론적 접근에서 살펴볼 수 있다(Tinto, 1993). 첫째,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대학생활의 유지는 개인의 능력 또는 의지에 달려 있고 대학중도탈락은 개인적 결핍이나 나약함이 반영된 결과이다. Tinto(1987)는 이 접근에 학업에 대한 의지와 헌신성을 포함했는데, 의지는 학습에 대한 열망으로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와 취업목표를 나타낸다. 헌신성은 학생의 학습과제에 대한 완성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학습 목표, 학칙이나 학사관리와 같은 학교 제도에 대한 헌신성을 포함한다. 최보금(2010)의 연구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에 대한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습과 취업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학생일수록, 학습과제의 완성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사회학적 접근은 개인 및 기관의 위치를 바라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기관의 위신 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 접근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포부 수준, 부모의 사회적 지지 등을 주로 다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으로 정서적 위안, 물질적 지원과 같은 지지를 받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Cobb, 1976). 노혜란, 최미나(2008)는 학교와 전공 선택에 있어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 전공과 희망하는 직업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학과문화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중도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셋째, 경제학적 접근은 개인이 대학교육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인 경제적 능력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업 유지에 있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구 소득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수연(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임연옥(2007)의 연구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적 접근은 사회구조와도 관계가 있다. 대졸 취업 가능성이 이에 해당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시 학력을 중요시하고 승진 및 임금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어, 인지도가 낮은 지방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학력에 의한 차별을 인식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있다(최명선, 강지희, 2008).

넷째, 조직론적 접근은 교육기관의 조직과 자원, 교육기관의 구성원 간 유대감 형태가 학업지속 또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Tinto, 1993). 즉, 대학의 설립유형, 규모, 학교운영형태, 입학난이도, 4년제 여부 등과 같은 기관의 특성을 말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립대학 학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하여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졸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6년 국·공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은 3.4%, 사립대학 중도탈락률은 4.4%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이 1.0%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또한, 입학난이도에 있어서는 입학난이도가 낮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며 입학난이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게 나타났다. 2016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경우 서울 소재 10개 대학중도탈락률은 2%였으나 수학능력시험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3.4%로 학생부종합전형 1.7%, 논술전형 0.9%, 특기자전형 1.4%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베리타스알파, 2018).

다섯째,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학교의 공식 조직과 학생 동료조직, 학생 문화와 같은 비공식 조직, 학생과 교수, 직원 간 상호작용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용남(2009)은 사회적 통합의 하위요인인 동료학생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학업중단보다는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명화 외(2005)의 연구에서도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멘토링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된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문화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심리적 과정이며 대학생활적응의 실패는 대학중도탈락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자는 차년도 입시에 재도전할 경우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발생하고 학업중단으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사회로의 진출을 늦게 할 수 있다.

이에, 각 대학은 추수관리를 통해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예비대학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안내, 미리 경험해보는 대학 강의, 선배·교수와의 대화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고등학교와 다른 대학생활을 미리 살펴보고 대학 강의를 들어볼 수 있으며 선배, 교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K대학에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지원학과에 대한 진로계획과 적성을 가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는 대학입학전형으로 입학해 중도탈락한 대학생이다. 3년간 중도탈락 한 대학생은 모두 10명이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를 의뢰하여 그중 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연구참여자 1은 국문학과 학생으로 작가를 꿈꾸며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업과 취업을 강조하는 학과 분위기로 인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2는 전적대학에서 언론영상학부에 입학하였으나 수능 시험에 재도전해 서울 소재 대학의 경영학과에 진학하였고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임을 깨닫고 전과를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공학계열 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하였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취업 합격 소식을 듣고 학업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중도탈락을 결정하고 취업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공연영화학부 학생으로 입학 전 생각했던 자유로운 대학생활과 달리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생활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4
성별	여	남	여	남
중도탈락 시기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최명선, 강지희(2008), 노혜란, 최미나(2008)의 연구를 토대로 대학입학과정과 대학생활경험, 추수관리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담내용을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대학입학과정과 대학생활경험, 추수관리, 중도탈락과정과 그 후 일상생활로 구성하였다. 대학입학과정과 대학생활경험은 대학지원동기, 입시준비과정, 대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들, 대인관계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추수관리는 입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과활동, 교·내외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중도탈락과정과 그 후 일상생활은 중도탈락 시기, 대학생활에서 도출된 문제점, 대학 포기결심동기, 대학생활에서 좋았던 점과 이유,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과 이유, 마음상태, 해결을 위한 노력, 반성대상이나 내용, 현재 하는 일, 중도탈락 요인이 없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 미래인생

계획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담자료를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과정을 기반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 과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코딩을 통해 면담자료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원리를 적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사실적 가치는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면담자료에 대한 해석과 연구결과가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녹음된 내용과 전사한 자료를 연구자 외 전문가 2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 전문가에게 그동안 연구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2명의 전문가에게 현재 분석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중립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공개하며 연구노트에 연구자가 학생 면접 시 느꼈던 느낌, 인식의 흐름 등을 기재하여 비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시도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개방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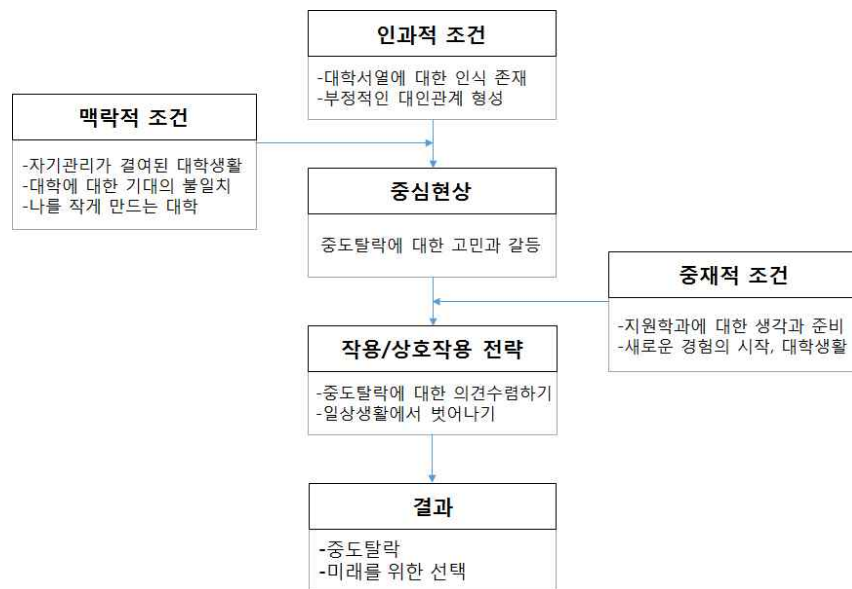
개방코딩을 통해 총 39개의 개념과 14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2>와 같이 범주분석을 하고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재적 조건, 결과에 해당하는 패러다임을 연결하였다.

<표 2>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범주분석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 서울 소재 대학 선호 · 인지도 높은 대학에 대한 열망	대학 서열 문화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 존재	
· 신입생 통과의례, 신고식 · 마음에서 멀어지는 대학	처음부터 어긋난 선배와의 관계형성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인과적 조건
· 어려운 선배와의 관계 · 선·후배 간 엄격한 서열 강요 · 단체활동의 강요	경직된 선·후배 관계		
· 진로고민과 갈등 · 진로의 불투명	불투명한 장래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	중심현상
· 자기관리가 부족한 대학생 · 학점관리의 부재 · 낮은 학업성취도	충실하지 못한 대학생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	
· 지도교수의 역할 한계 · 현실감 없는 단일전공제 · 기초과목 강화요구 · 실질적 추수관리의 희구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	대학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맥락적 조건
· 희망과목 수강신청의 어려움 · 의미없는 학사행정지원	학생 외면 행정지원체제		
·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으로 인한 패배감 · 친구들과의 비교로 인한 자격지심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학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	
· 중도탈락 결정 확고히 하기 · 중도탈락에 대한 동의 얻기	중도탈락에 대한 생각 나누기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수렴하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 대학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시간 만끽	일탈(逸脫) 감행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 성적보다는 적성 고려 · 졸업 후 직업 고려 · 스스로 준비하는 입시 ·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준비 · 적극적인 경력 쌓기	입시에서 발휘된 나의 자발성	지원학과에 대한 생각과 준비	중재적 조건
· 동기는 대학생활의 동반자 · 선배는 대학생활의 안내자 · 교수는 대학생활의 지휘자 ·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인적네트워크 형성: 대인관계의 확장	새로운 경험의 시작, 대학생활	
· 중도탈락 전 다른 대학에 합격 · 중도탈락 후 휴식기를 갖고 복학	그곳을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중도탈락	
· 보다 밝은 미래 기대 ·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 · 미래인생계획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미래를 위한 선택	결과

2. 범주분석에 의한 축코딩

범주분석을 바탕으로 한 축코딩을 통해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연관시키면서 범주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그림 1]과 같이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중심현상인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 존재’,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일어나며 중심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활’과 ‘대학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의 맥락적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 중심현상에 대한 증재적 조건으로는 ‘지원학과에 대한 생각과 준비’, ‘새로운 경험의 시작, 대학생활’이 도출되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고 결과는 ‘중도탈락’,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림 1]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인데(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 존재’와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이다.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인지도 높은 대학교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1의 부모, 성적과 어학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대학이 있음을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 1, 어학특기가 있어 외국어를 잘 하면 그만큼 만족할 만한

대학에 진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연구참여자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당연히 부모님은 이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은 학교, 인 서울. 저도 친구들 때문에 옮기기 싫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옮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00대 이정도만 됐어도 안 갔을 수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

“애들이 영어, 중국어나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기회가 되면. 토플 1~2점 차이냐고 한 번 더 해 볼만 하다고. 자퇴한 애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선배와의 관계 형성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학과의 전통인 신고식으로 인해 선배와의 부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선배와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대학생활부적응으로 이어졌다.

“수업 끝나고 극장 신고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하지 않는데... (중략) 빠질 수 없어요. 강제로 무대에 서는 거예요. 혼자서. 선배님들이 심심하니까. 장기 부려봐. 이러는 거예요. (중략)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 처음부터 하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졌어요. (중략) 저희 학교 공연영화학부 특성이 선·후배 관계가 서열이 굉장히 분위기가 센 편이고.” (연구참여자 4)

둘째, 중심현상은 연구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인데(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다.

연구참여자 1은 주변인들이 스스로를 ‘미실(미래실업자)’이라고 칭하고 취업하기 위해 학점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며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점이 있었다. 주변 친구들이 기초학문에 속하는 국문학과가 실용학문에 속하는 타학과들 보다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어두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졸업 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국문과 입학할 때도 창작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아예 취업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면 다들 ‘미실’이라고, 미래 실업자라고”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3은 취업이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하였다. 취업으로 인해 그만둔 학교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취업을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 몇 년간

직장 경험을 더 해 보고 학업을 이어간다면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정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녔을 때 과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까? (중략)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중략) 남들이 학교를 다닐 때 여기에서 회사경험을 좀 더 쌓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셋째, 맥락적 조건은 연구참여자들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조건의 집합으로 전후관계인 맥락은 특정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게 하는 조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활’, ‘대학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 이다.

자기관리가 부족하고 학점관리를 하지 않아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면서 충실하지 못한 대학생활,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활’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4는 학업보다 일에 무게를 두면서 학업에 소홀해지고 강압적이고 비합리적인 학과분위기로 인해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은 상황에서 관심 없는 분야의 과목 수강은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졌다.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고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학업성과 같은 경우는 글썽 수업을 열심히 듣지를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주 의였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학교보다는 바깥쪽 일에 더 집중하는 편이었어요. 학교를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났던 것 같아요. (중략)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중략)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열심히 안 했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은 거고...” (연구 참여자 4)

학생 외면 행정지원체제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은 연구참여자들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대학에 대한 기대 불일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고교의 담임 선생님 같은 지도교수제, 복수전공제 활성화, 기초과목 강화, 실질적 추수관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중도탈락 후 입학한 다른 대학의 지도교수제의 예를 들면서 지도교수의 역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해 기초학문분야의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다니는 학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OO대도 혹시 지도교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담임 선생님처럼 챙겨주세요. 교수님들이. (중략) 둘째로는 복전(복수전공)이나 이런 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학과 당. 지금 다니는 학교는 복전이랑 제 4전공까지 가능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3은 공대 신입생을 위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목 개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신입생에게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추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기초과목. 그게 가장 아쉬워요. 학교측에서는 좀 힘들겠지만...예를 들면 물리를 안 했는데 물리학과를 간 친구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한 과에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초과목 수강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연구참여자 3)
 “교수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메일 보내도 도움 받는 걸 못 느꼈어요. 답장은 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챙깁니다.’ 하는 것 같고 정작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2)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은 친구들의 대학진학과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진학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패배감과 자격지심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명문대에 입학한 주위 친구들을 보며 ‘패배감’ 같은 것을 느꼈으며 부모님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애들이 착하고 결국 나중에는 같이 다니던 친구들 때문에 안 옮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친구들이 밥 먹여주냐고 그리고 급 옮기게 된 거예요. (중략) 같이 입시 준비 하던 친구들이 OO대, OO대 등에 많이 갔어요. 저는 패배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연구참여자 1)

넷째, 중도탈락에 대처하거나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연구참여자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인(Strauss & Corbin, 1998)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중도탈락에 대해 주변인들과 중도탈락에 대해 의논하였다. 중도탈락에 앞서 부모님, 동기, 조교와 중도탈락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의견 수렴하기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를 통해 중도탈락 결정을 확고히 하고

중도탈락에 대한 주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연구참여자 3은 학업과 취업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어 도움이 컸다고 했다.

“조교오빠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중략) 조교오빠가 기초학력 통과했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자퇴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중략) 오빠가 하는 소리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 남들에 비해 다른 경험을 해서 좋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걸 너만 못하니까 또 아쉬울 거다. 상담을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연구참여자 4는 중도탈락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휴식기를 가졌지만 곧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캐스팅을 위해 오디션을 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너무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한 15일에서 16일 정도는 놀았어요. 20살 때니까 딱 휴학하고 하니깐 좋다... (중략) 놀러 다니기도 하고 좀 놀다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계속 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중략) 인제 그만 놀아야겠다. 이건 방종밖에 안 되겠다. (중략) 다시 거의 회사에 전념했어요. 연습도 다니고 오디션도 많이 다니고...” (연구참여자 4)

다섯째,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또는 제한하는 요소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새로운 경험의 시작, 대학생생활’, ‘지원학과에 대한 생각과 준비’이다.

연구참여자 2는 대학입시를 위해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과년도 입시문제들을 살펴보고 면접에 대비해 스스로 연습해 보며 시사와 관련된 읽을거리를 찾아보면서 입시를 준비하였다.

“제가 수능을 못 봤어요. (중략) OO대는 홈페이지에 작년 기출문제 보면서 혼자 리허설 같이 혼자서 인터뷰였으니까 인터뷰 혼자 준비해보고 시사와 관련된 것들 찾아보고해서 준비했구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4는 연기관련 학과에 제출할 활동 자료 준비를 위해 출연료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배역에 도전하고 활동자료를 모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대학에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입시 준비과정은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개런티 같은 것도 원래 회사에서 따지는데 안 따지고 경력을 늘리기 위해 좀 많은 지면광고라든지 아니면 CF라든지... 서슴없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까지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넣었는데 교수님들과 대화도 잘 통하고 (중략) 대학 붙은 다음에 정말 좋아했죠.”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동기, 선배, 교수와 관계를 형성하고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연구참여자 4는 선배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기들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연구참여자 1은 전공 교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세심하게 대하는 교양학부 교수로 인해 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 졸업 후 교수가 되겠다는 진로계획을 이야기하였다.

“동기들하고는 친해요. 서로 OT때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잘 챙겨줘요.” (연구참여자 4)

“일단 교수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학생을 대해주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중략) 저는 그분과 주교수님도 아니고 교양 들었던 교수님이신데 밥도 사주시고 밖에 나가서 ... (중략) 지금 저는 그분하고 연락하고 따로 뵈지도 않지만, 지금은 대학원 가서 더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4명 중 2명은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유명 시인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3도 예비대학에 참가하여 다른 학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의 도움을 받고 멘토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입학 전에 3박 4일 캠프 아세요? 그거 해서 같은 수시 친구들끼리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예비대학 때 갔었어요. 아직 그 친구들이랑 멘토들이랑 대화해요. 되게 좋았어요. 예비대학. 그때 만났던 멘토 오빠들 지금 저보다 한 학년 아래 후배한테 소개를 해 줬어요.” (연구참여자 3)

여섯째,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이 조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Strauss & Corbin, 1998).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결과로는 ‘중도탈락’, ‘미래를 위한 선택’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도탈락 전 다른 대학에 합격하거나 중도탈락 후 휴식기를 갖고 복학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학과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여 합격 후 전적 대학을 중도탈락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전적대학에서는 학교보다는 적성을 고려한 전공 선택으로 지원학과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재수를 통해 좀 더 인지도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하는 전공보다 성적에 맞춘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전과를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업보다는 일에 무게를 두어 학교생활에 소홀해지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중도탈락에 대한 갈등과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였다.

“여름 방학하고 국문학과 다니니까 논술 침삭알바를 하다가 제가 논술전형 있는 학교 세 군데에 지원을 했어요. 덜컥 붙은 거예요. 10월에 합격소식 듣고 자퇴했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00대 같은 경우 과를 접수 맞춰가느라고 다른 과로 갔어요. 경제학부로. 그쪽 관련된 비교과 낼 것이 있어서 갔는데 전공 안 돼도 전공 쪽을 찢러 볼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전공 쪽이 난 거 같아요.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서. 전과도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

“휴학을 하고 나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학교를 똑같이 열심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중략) 중도탈락에 대해서는 (중략) 2학기 때 한 번 더 맞았는데 똑같은 이유였어요. 나아지지 않는 생활패턴...” (연구참여자 4)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더욱 단단해진 마음이 짐으로 미래인생을 계획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예상할 수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친구들의 현재 모습을 예로 들며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석·박사 학위까지 받고 문학관련 잡지를 만들거나 인문학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일단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략) 문학지 같은 데 취직... 인문학 연구소 같은데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취업이 목표구요.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만족하신다 싶으면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석·박사 받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3. 근거이론에 의한 과정 분석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개념 간의 관계를 코딩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 분석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살펴 그 순서와 변화, 맥락이나 상황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다(정찬영, 2012).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의 과정분석을 진로고민하기, 의견수렴하기, 중도탈락 결정하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좀 더 분명한 장래에 대한 갈망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입학과 동시에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하였고 연구참여자 2, 3은 지원학과 졸업 후 진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학업 지속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도탈락에 대한 주변인들(조교, 친구, 동기, 부모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도탈락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연구참여자 1은 1학년 2학기에 수시 논술전형으로 전적대학과 동일한 학과에 입학 후 전적대학에서 중도탈락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군에 입대하여 1학년 2학기 수시전형으로 전적대학과 다른 분야의 학과에 입학 후 중도탈락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도탈락 후 각자 선택한 진로에 만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연구참여자 1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전적대학보다 동기들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고 했지만 대학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4. 대학중도탈락에 대한 선택코딩: 핵심범주

지금까지 살펴본 범주분석, 패러다임 모형, 과정분석을 바탕으로 선택코딩 단계인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전체 면담내용을 통합하는 핵심범주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선택하기’이다.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생각과 맞닿아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입시 준비, 대학생활, 중도탈락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미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대학중도탈락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과정, 대학생활, 추수관리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대학입학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대학생활을 경험했는지, 어떤 추수관리에 참여했는지를 통해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대학생활에서는 ‘충실하지 못한 대학생활’, ‘불투명한 장래’, ‘대학 서열 문화’, ‘처음부터 어긋난 선배와의 관계형성’, ‘경직된 선·후배 관계’, ‘인적네트워크 형성: 대인관계의 확장’과 같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대학생활과 함께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만 선배와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학생활에 소홀하기도 하였으며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대학이지만 불투명한 장래,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학서열 문화로 인해 중도탈락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대학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 ‘학생 외면 행정지원체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에 인식한 대학 지원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친구들이 재학 중인 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서열에 대한 인식 존재’,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중도탈락을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자기관리가 결여된 대학생활’, ‘대학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나를 작게 만드는 대학’이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 요소로 작용하였다. ‘지원학과에 대한 생각과 준비’, ‘새로운 경험의 시작, 대학생활’은 대학생활에 적응해 보려는 노력으로 비춰졌으며 ‘중도탈락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다가 ‘중도탈락’하거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였다.

넷째, 핵심범주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선택하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중도탈락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중도탈락에 이르는 과정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진로선택이 내재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입학 전부터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문분야를 찾고 스스로 내적 노력을 하였다. 신중하게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한 만큼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으며 대학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중도탈락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일시적인 중도탈락 후 대학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한 진로 결정 후 주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범주분석의 결과와 대학생활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으로는 진로 및 취업상담 강화를 통해 진로탐색 기회 제공,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복수전공 및 전과제도 활성화, 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이러한 각 대학의 지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진로와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약한 이공계 학생을 위해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이나 전과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집단의 연구참여자에서 관찰된 현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양적 연구가 필요하며, 정시입학자와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비교 연구, 지역별(도시/농촌), 대학서열별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기수, 조규관(2007).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3), 143-164.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교육과학기술부(2007).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4). '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6).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 교육부(2017).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의견수렴.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 김경희(2011).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378-387.
- 김보나(2011). **선발 방식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수연(1998).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8(2), 77-108.
-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노경란, 윤수정(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발전논총**, 33(1), 91-118.
- 노혜란, 최미나(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박우정(2018).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중도탈락의도,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차이**.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베리타스알파(2018). 정시 입학생 핵심 역량 뛰어난가..교육계, 연구신뢰도 의문 제기. Retrieved fro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65> 에서 검색
- 서울신문(2011.1.11). 입학사정관제가 부른 '로봇 영재'의 죽음.
- 양경화(2005).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연보라, 장희원(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129-155.
- 윤형식, 강창완(2015). 입학전형유형에 따른 전형요소 및 신입생 특성분석: 2015학년도 D대학 입학전형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483-2493.

- 임연옥(2007).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1(1), 205-219.
-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2014). 입학전형별 대학생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3, 91-110.
- 정명화, 신경숙, 박성미(2005). 전문대학생의 학과적응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교육학연구**, 43(1), 1-24.
- 최명선, 강지희(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03-225.
- 최보금(2010). 대학생 학업중단의도의 변화과정과 관련 요인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 403-427.
- 황형태(201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의 학교 적응실태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팀.
- Astin, A. W. (1985). *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orris, C. G. (1985). *Psychology: An introduction*. (5th ed.) NJ: Prentice Hall.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신경림 역,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